



4월 계란소비 감소 대비해야

- 철저한 농장관리가 필요 -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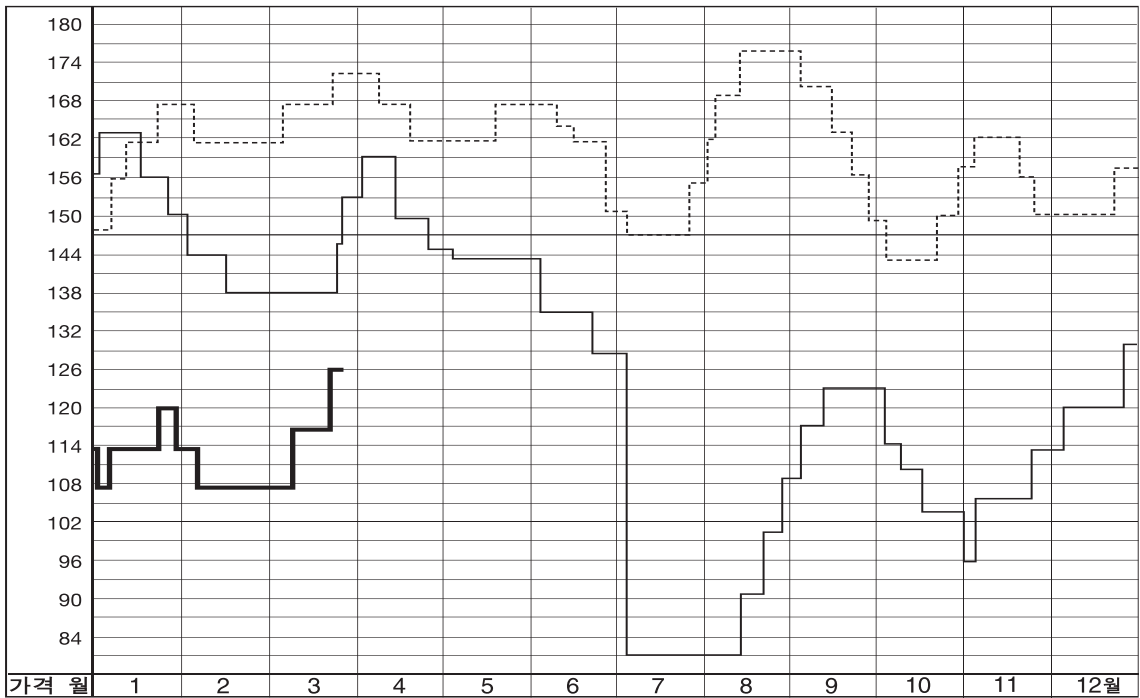
전국 난가가 특란 기준 2주간 20원이 인상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려운 농장경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농가들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금년 2/4분기 계란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칠 지난해 4/4분기 병아리 분양 마리수는 10,353천수로 전년 동기간 대비 6.3% 감소하였다. 하지만 해당기간은 일시적으로 부화장에서 병아리 감축분양을 시행했던 시기여서 계란생산량 감축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환우계군과 신계군의 생산 가담으로 난가는 장기간 약세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대형할인마트, 학교급식, 대형 급식업체, 부활절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유통이 원활해지고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서 난가는 자연스럽게 인상되었다.

◆ 자료분석

지난 2월에 산란중계 입식마리수는 74,880수로 전월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2월까지의 누계 입식마리수는 137,880로 전년 동기간대비 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까지의 산란병아리 분양 마리수는 2,772천수로 전년 동기간대비 56.9% 감소하였다. 1/4분기 육추사로 생산량은 27,017톤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13% 감소하였다. 올해 1월 산란계 대형부화장의 종란폐기로 인한 영향이 4월까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공급량은 잠재력 수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산란계 도계수수는 3,061천수로 전년 동월대비 12.44% 감소하였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잠재력은 28,414천수로 전년 동월대비 12.4% 감소하였다. 산란사료 생산량은 181,528톤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기간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노계군의 조기 도태와 환우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계란생산량은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냈다.

◆ 전망

전국적으로 난가가 13일에 걸쳐 3차례 인상되면서 난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 유통현황은 난가 인상에 따른 기대심리로 계란수거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3월말부터는 대형할인마트 계란할인 행사와 부활절 특수 종로 등으로 계란 소비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난가 하락에 대한 조심스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1월 신계군의 주령이 증가하면서 중란이하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큰알 생산 비중이 증가되어질 예상된다. 금년 2/4분기 계란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칠 지난해 4/4분기 산란실용계 병아리 분양마리수는 10,353천수로 전년 동기간 대비 6.3% 감소하였다. 사육마리수 증가로 계란 생산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만큼 난가인상에 대한 그릇된 기대로 노계 도태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며, 농가에서도 여전히 생산비 이하의 난가로 철저한 농장관리가 필요하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1-- 2012- 2013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263	27.0	181.9	1,075	1,079
2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500	633			1,075	1,088
3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4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5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6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8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9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0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11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계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